

단일 지자체로는 중앙정부 설득 못한다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3> 위기 즐기고 기회 살려야

호남은 낙후의 대명사다. 산업화 이후 호남은 인구, 경제력에서의 우위를 넘겨 주고 계속 위축됐다. 대부분 정치적 비주류에 속했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잠시 주류가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겪어야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과거 형평성 차원에서의 배려도 사라져 낙후를 넘어 소외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은 각자 살 길을 모색하며 경쟁했다. 특히 공학, 고속철도, 대규모 프로젝트 등 전역 또는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이 그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정부에 투자 규모 축소나 시기 지연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의 호남' 공감대 형성 시급=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광주는 전남에서 분리됐다. 경제권이나 생활권과는 별개로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가 정착되고, 이후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

3개 시·도 각자 살 길 모색...배려마저 사라진 '낙후호남'

호남고속철 개통·새만금·J프로젝트 등 공동대처 나서야

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호남 내의 경쟁 구도는 더 치열해졌다. '업적'을 최우선에 둔 수밖에 없는 단체장이 자신의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이나 예산 유치를 고집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의 갈등이 불거졌다. 성장엔진인 대도시 광주에 대한 집중투자에 의한 혜택이 전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호남에서의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과 함께 갈등은 회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광주·전남 역시 무안공항 문제의 광역협의와 조차 열지 못할 정도의 관계로 전락했다.

이러한 '갈'을 매우기 위해서는 단체장, 의원, 공무원 등의 교류 회복을 시작으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소규모 연계·협력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기존 갈등 및 마찰의 해소를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광주, 전남,

전북이 지금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감정적인 자극을 했다"며 "일정한 주제로 상호 만남을 지속해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기회'에 공동 대처해야=민선 6기(2014~2017)가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충북 오송~광주송정)의 개통과 함께 지속적인 도로 정비 등으로 호남 권역이 모두 1시간 내외로 좁혀져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이 이 시기에 포함돼 있으며, 전북의 새만금사업, 전남의 J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이 이 시기에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남의 위기를 초래한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 인구 고령화 및 젊은층 유출, 자체 경제력 취약, 정치권 소외 등의 요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공동대처가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위기 요소를 줄이고 기회를 극대

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는 호남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계를 초월해 서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행정, 언론, 기업, 대학 등 호남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 소통과 전략, 배려와 지원의 리더십 필요=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 등 '수요 감소'로 인해 과거와 같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기반시설을 특정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등 단일 지자체로는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과거 공학, 고속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 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지역 역량을 기존 자원에 대한 보완, 호남 내 낙후지역 배려 및 지원, 가치를 높이고 혜택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는 "각종 인프라 계획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인플레이션 연계성 결여로 오히려 지역경제의 약화를 불러왔다"며 "국비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 개별적으로 건의하면서 설득력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심코 거리 오가는 우리가 바로 풍경



(76)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추위를 말해 주듯이/이렇게 비가 내리면/그 날이 생각이 나네/웃음을 세워주면서/우산을 받쳐준 사람/오늘도 잊지 못하고/빗속을 혼자서 가네..." <채은옥의 노래 '빗물' 중에서>

장마철이다. 예년에 비한다면 시기적으로 지각장마일 것이다. 태풍 '너구리'가 지나가면서 여름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요즘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추억의 유행가가 가슴을 적셔준다. 올 봄에 관람했던 영화 '수상한 그녀' 속 '젊어진' 여주인공이 애달게 불렀던 노래가라이 아직도 생생해서 일까? 내리는 비를 보니 노래도, 영화도, 추억도 되살아난다.

화가들은 비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비를 소재로 한 화가들의 작품들에는 풍경화가 압도적이다. 영국 출신 팔아트 작가 졸리언 오피(1958~) 역시 개성있는 감성과 구도로 비 내리는 도시 풍경을 그렸다. 특정한 인물 혹은 장소를 통해 도시적 삶을 규정하는 역동적 시선과 대담하게 오고 있는 작가는 특히 사람의 움직임을 고도의



졸리언 오피 작 '비 내리는 신사동을 걸으며'(2014년)

감각적인 안목으로 관찰해내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 '비 내리는 신사동을 걸으며'(2014년 작)는 작가가 서울에 머물면서 만났던 보행자들의 인상을 담은 회화 연작 가운데 하나이다. 패셔너블한 소품들과 밝은 색채의 의상, 경쾌한 발걸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끊임 없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도시인들의 초상화일 것이다.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서는 인물을 바라보라. 이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인물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도, 낯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 낸다." 작가의 언급은 무심코 거리를 오갔던 우리가 바로 풍경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7:30 재보선 후보 등록 접수 준비

7:30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접수일을 하루 앞둔 9일 광주시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접수 업무준비를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車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협조해 달라"

윤장현 광주시장·김동철 의원, 산업통상장관 만나 요청

윤장현 광주시장이 김동철 국회의원과 공동 보조를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 광주시가 긴밀히 협력해 소기의 결실을 보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은 산업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이날이 밝혔다 김동철 위원장 측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위원장은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아직 이렇다 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반대

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광주시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의 미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형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의지와 각오인 만큼 산업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김동철 위원장은 "산업부는 그간 사업기획의 초기단계이고 현대·기아차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던 것과 달리 윤 장관이 오늘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했다. 총 사업비 8300억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심사(7월) →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 평가 → 기획재정부의 심사(12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전화 | 062) 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062)431-0102
가람여행사 수완점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세요!

무안출발 연길(백두산)전세기
6월 27일(금)~8월 18일(월)
매주 월요일 (4박 5일/금요일 (3박 4일))

[캐주얼] 연길/백두산 5일 *북파코스* 699,000원~	[캐주얼] 연길/백두산 4일 *북파코스* 999,000원~
-------------------------------------	-------------------------------------

무안출발 마카오(홍콩) 전세기
7월 27일~8월 7일
매주 일요일 (3박 5일/목요일 (2박 4일))

[캐주얼] 마카오/홍콩 4일 949,000원~	[캐주얼] 마카오/홍콩/심천 5일 999,000원~
------------------------------	---------------------------------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히니문 상담회

HAPPY HONEYMOON GUIDANCE

방문 EVENT!
히니! 두드드 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달 여행용 트래블백 제공

예약 EVENT!
히니! 생생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
달 "롯데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제공
(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고객 한정)

셋 지역별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투어 마일리지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기!

- 진세계 항공권/호텔 여행
- 문화공연 예매 하나트리 Ticket
- 쇼핑여행상품(로리프스타일헤어특산물, 가전, 식품 2점)
- 생활서비스 모바일 상품카드(와시/주유명화카드 등)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생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용,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가(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지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공사 지정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점) ■관광통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패키지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